

부산외대 땅 드디어 개발한다

<우암동 캠퍼스 부지 13만㎡>

청년임대주택, 도서관, 해양R&D, 창업센터 등 공익개발

부산시 내년부터 부지 매입… 땅값 포함 사업비 2000억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 발휘

4년째 방치된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가 마침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비 828억원을 투입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옛 캠퍼스(13만㎡)를 사들인 뒤 청년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해양R&D, 창업센터 등의 복합공간으로 본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제2층 일반주거지역(32.1%)과 자연녹지지역(67.9%)으로 이루어진 캠퍼스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할 계

획이다. 먼저 대학본관 등 30년이 넘는 6개동 건물은 철거한 뒤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커뮤니티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건물 상태가 양호한 외성생활관 등 10개의 건물은 리모델링해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시설, 해양 R&D센터, 창업지원센터, 시민도서관, 연합기숙사 등으로 활용한다. 철거와 신축에 1468억원, 설계·리모델링에 540억원 등 총 2000억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부산외대 부지 개발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우암부두 개발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항만공사가 진행하는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외대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해 인근 우암부두와 배후 ODCY 부지

를 연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외대 부지 개발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하고 향후 우암부두와 배후 ODCY 부지를 잇는 삼각 트라이앵글로 묶어 신해양산업의 허브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남구 실내빙상장 5월 10일 준공식



쇼트트랙 등 주민 강습

부산 동계스포츠에 새 장을 열 남구 실내빙상장이 문을 연다.

남구는 오는 5월 10일(목) 오후 3시 용호동 백운포체육공원에서 실내빙상장 준공식을 개최한다.

덕천동 북구문화빙상센터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남구 실내빙상장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원과 시비 30억원, 구비 30억원 등 110억원이 투입돼 지상2층(높이 11m, 연면적 4222㎡)에 국제규격 아이스링크(61m×30m) 1면, 200석 규모

의 관람석, 기계실, 휴게실 등을 갖춘다. 이번 실내빙상장 완공을 계기로 백운포 일원은 기존의 체육공원, 남구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영남권 최고의 도심지 내 동·하계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빙상장 자유스케이팅 입장료는 어린이 6000원, 청소년 7000원, 성인 8000원으로 책정됐다. 또 쇼트트랙 강습과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로·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경기 뿐만 아니라 빙상장의 상업적 대관도 가능하다.

☎607-4042



지난 12일 열린 분포문화체육센터 개관식. 작은 사진은 4층 헬스장과 2층 분포도서관 종합자료실.

삶의 품격 올릴 분포문화체육센터 개관

분포도서관은 5월말부터 운영

남구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분포문화체육센터와 분포도서관이 지난 12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분포문화체육센터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근린공원 부지에 연면적 363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돼 1~2층은 도서관으로, 3~4층은 체육시설이 들어섰다.

3층은 힐링요가와 필라테스를 위한 그룹운동실과 사워장, 라커룸으로 사용되고 4층 체력단련장은 런닝머신, 사이클 등 42

종 144점의 최신식 운동기구가 설치됐다. 이용 요금은 남구국민체육센터 헬스장과 동일한 한달 성인 4만4000원, 청소년 3만 8000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분포도서관은 개관식은 가졌지만 장서 준비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5월 중순 이후에야 이용이 가능하다. 남구 도서관 분관으로 운영되는 분포도서관은 신간서적 2만4150권(종합실 1만3333권, 어린이실 1만817권)과 간행물 50종을 보유할

계획이다. 1층은 북카페와 어린이·유아열람실, 2층은 종합자료실로 꾸며진다.

분포문화체육센터는 주상복합아파트 ‘W’의 시공사인 IS동서가 127억 원을 들여 건립해 남구정에 기부채납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3억 원에 달하는 장서도 IS동서 측이 전액 지원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IS동서 권혁은 회장은 “IS동서는 1987년 남구에서 태동해 이만큼 성장했다”고 소회를 밝힌 뒤 “기업이윤의 지역 환원 차원에서 건립한 분포문화체육터가 문을 열어 감회가 남다르다. 남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분포문화체육센터		
분포도서관 화~토 (09:00~18:00) 일(9:00~17:00) ※ 종합자료실은 6월1일부터 주중 09:00~22:00	지하2층 1층 2층	보존서고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북카페 종합자료실, 배움실
체육시설 ☎ 607-3360 626-8200	3층 4층	그룹운동실, 사워장, 라커룸, 인내데스크, 체력단련장 (헬스장)

◎ 주소 : 남구 분포로 97
◎ 가는 방법
-시내버스 :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정류소에서 583번 이용 ‘용호만유람선터미널’ 하차
-마을버스 : 2번 이용 ‘LG메트로시티 133동 상가 앞’ 하차

남구 무료법률상담

6월13일까지 운영 중단

남구의 무료생활법률 상담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6월 13일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조치로 선거 이후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반면 법무부 과전 변호사가 남구정에 상주하며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살을 훌닥다’와 대한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 ☎ 505-1648)의 무료법률상담은 선거와 상관없이 운영된다.

남구청 체납과의 전쟁	〈3면〉
남구 비전2030 주민 설문조사	〈4면〉
렌즈에 담은 남구의 봄	〈7면〉
남구에도 염전이 있었다	〈8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 씨 초청 강연회

노병의 ‘마지막 귀환’에 초대합니다

5월 2일 오전 10시

유엔평화기념관 3층

“For your tommorrow, we gave our today(당신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바쳤습니다).”

영국군 6·25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James Grundy·86) 씨가 몇 해 전 본지에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그룬디 씨는 6·25 때 시신처리전담팀(Recovery Unit)에서 1951년 2월부터 1953년 6월까지 복무하였습니다. 총대신 삼파 곡괭이를 들고 전장에서 숨겨진 동료들의 주검을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총탄에 갈기갈기 찢어진 전우의 살점과 뼈를 수거하는 일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일을 26개월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렇게 수습한 유해는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군은 미군 다음으로 많은 1177명이 전사하였고 그 중 855명이 유엔기념공원에 영면해 있습니다. 그룬디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유엔기념공원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그룬디 씨는 1988년 5월, 14시작 비행기를 타고 영국 맨체스터에서 유엔기념공원으로 왔습니다. 첫 방문 뒤 30년 동안 한 해도 빠트리지 않고 5월이 되면 혼자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전우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습니다. 올해도 전우들을 만나러 남구를 찾아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척추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암환자로 내일을 기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치의의 만류도 그의 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이에 유엔평화기념관과 유엔기념공원이 그룬디 씨의 헌신에 보답하는 의미로 시민 초청 강연회를 마련하였습다. 그룬디 씨를 통해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 피어나는 숭고한 인류애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병의 ‘마지막 귀환’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임스 그룬디 초청 강연회

일시 : 5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유엔평화기념관 3층 컨벤션홀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유엔평화기념관 주최
유엔기념공원 후원



지난 2016년 5월 유엔기념공원 영국군 묘역에서 6·25 당시 시신처리 임무를 설명하고 있는 제임스 그룬디 씨. 말기암 환자 같지 않은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2022년까지 남구 소방서 신설”

부산시 언론 브리핑

남구 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형 소방안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남구를 담당할 소방서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등 남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한 조치다. 시는 현재 마땅한 소방서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 소방 방재 업무를 맡고 있는 남부소방서는 지난 1996년 1월 수영구 관안

동에 신설돼 수영구와 남구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문현1~4동 4개동은 부산진소방서에서 관할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산시소방안전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부소방서에는 226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소방관 1인당 주민 1854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 11개 소방서 가운데 두드러소방서 다음으로 주민 담당이 많고 부산 전체 평균(소방관 한 명당 주민 1085명 담당)보다 과도하게 많아 남구 소방서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항 8부두에 세군무기 실험실 없습니다”

국방부, 남구청에 공식 답변… “탐지·감시체계로 실험실 자체가 불필요”

국방부는 북한의 생물화학무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방어시스템 주피터(JUPITER) 프로그램과 관련해 감란동에 소재한 부산항 8부두 내에는 세군무기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최근 남구청에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다.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방어를 감시체계

가. 부산항 8부두 세군무기 실험실 설치 현황

부산항 8부두에는 세군무기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물학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생물학 물질 등을 탐지하여 경보를 전파하는 방어용 감시체계임.

주피터 프로그램의 장비들은 생물학 작용제의 실험을 위한 장비가 아니며 이미 미국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되어 추가

로 세군무기 실험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주피터 프로그램은 탐지 및 분석시설로서 생물학 실험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비상연락체계 및 사고발생을 대비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부산시민과 남구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8부두 내 미군 생물화학기 실험실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하반기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맞물려 미군이 감란동 8부두 내 미군기지(면적 7만837㎡)에 주민동의 없이 생물화학기 실험실을 설치, 운영한다는 루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주민 불안감이 확산됐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탐지 및 분석시설로서 생물학 실험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비상연락체계 및 사고발생 대비계획 수립이 불필요함. 다만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해 의심물질이 화학·생물학 작용제 등으로 확인될 경우, 군 및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음.

화생 테러 발생 시 테러 유형별로 국가테러위기관리체계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대응조치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끝.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군무기 실험실’ 국방부 답신 전문

적인 검증이나 실험이 불필요하고 세군무기 실험과는 무관함.

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두의 미군 전용 기지에 2016년말 장비를 도입하여 2017년 1월부터 시범 운용 중에 있으며, 생물학 위협에 대비하여 기지 주변 공기 중의 다양한 물질(차량·선박 등의 배기가스, 미세먼지 등)을 탐지·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나. 비상 연락체계 구축 현황,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에 따른 계획